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

KATECH Insight

- ◆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 EU·미국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독립 정비업자·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갈 전망
- ◆ 차량데이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필요

■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자동차 산업 내 차량데이터 중요성 대두

- 차량데이터는 차량 내 IoT 장비를 통해 운행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 IoT·통신 기술 발달로 차량 위치, 부품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렌트·보험·중고 거래·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마케팅, 자율주행 연구 등에 활용될 전망
-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은 대폭 성장할 전망
 - `18~`28년 연평균 성장률은 38.5%, 총규모는 `28년 869.1억달러 전망(Emergen Research)

■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 EU·미국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갈 전망

- `22.2월 EU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데이터를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EU ‘데이터법(Data Act)’ 초안을 공표함
 - EU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가치를 관계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데이터 접근·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23.3월 내 의회 입장을 정할 예정
 - * `18년 도입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역내·역외 기업에 대해 개인데이터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최소 2천만€)를 과징금으로 부과
 - ** ‘데이터법’은 역내·역외 기업의 비개인(산업)데이터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은 GDPR 규정을 준용할 가능성 존재. 동법은 공적 기관에의 산업데이터 공유 의무 등도 포함하여 큰 파장 예고
 - 커넥티드카 등 IoT 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품이용자(예: 차량 소유자)가 접근·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라 제3자(경쟁사 포함)에 공유할 의무를 데이터 보유자(예: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
 - * 예: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가 요구하면 차량 주행데이터 등을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해야 함
 - 데이터 보유자는 제품 이용자에게 데이터 공유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품질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
- EU는 또한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VBER)’ 개정안을 통해 독립 수리·정비업자에게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23.6월~`28.6월간 보장할 전망
 - ‘MVBER(Motor Vehicle Block Exemption Regulation)’은 자동차 제조사·판매업자·부품사(수리·정비업자) 간 거래 시 경쟁촉진 보장조치를 시행한 경우 일괄적으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
 - *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등 기업의 일부 거래·행위를 규제

- 이번 개정안은 수리·정비에 필요한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량데이터 공유 대상은 수리·정비업자로 예상되며, 공유범위 등은 '23.5월까지 확정할 전망

* 유럽보험연합(Insurance Europe)은 'MVBER'에 의한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보험사에도 보장해달라고 요청

• **적법성 공방이 진행 중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차량데이터 접근법(Vehicle Data Access Law)' 이 발효되면 미국 독립 수리·정비업자의 차량데이터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 존재**

- '차량데이터 접근법'은 '수리권 보장법(Right to Repair Law)'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독립 수리·정비업자에 의무 제공하는 정보에 텔레매틱스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는 개정안

* 매사추세츠주 '수리권 보장법'은 車 수리·정비 분야의 공정경쟁, 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해 '13년 도입됐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수리권 보장협정(R2R Agreement)'이 체결될 정도로 영향력이 큼

** '수리권 보장협정'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①산하 딜러에게 제공하는 수리·정비 정보시스템과 동등한 것을 독립 수리·정비업자에 제공할 의무, ②진단·수리 정보를 부품 제조사 등에 제공할 의무 등을 부과함

-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자 및 독립 수리·정비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

* 독립 수리·정비업자는 차량 소유자가 요청·승인해야만 진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동법은 '20년 가결됐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집행정지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될 전망

*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사이버 보안위험이 없는 차량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기 어렵고, 동법 적용 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연방 안전·환경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 일부 제조사(스바루·기아)는 문제방지를 위해 매사추세츠주 판매 차량의 텔레매틱스 기능 비활성화('21년~)

Ⅰ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 Ⅰ

구분	차량데이터 정의	차량데이터 공유대상	비고
EU '데이터법(Data Act)' 집행위 초안	커넥티드카 등 IoT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	차량소유자,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	'23.3월 EU 의회 입장 확정 예정
EU '자동차분야 경쟁법 일괄 면제 규정(MVBER)' 개정안	수리·유지보수에 필요한 차량데이터	차량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23.6월 발효 예정
미국 매사추세츠주 '차량데이터 접근법 (Vehicle Data Access Law)'	진단·수리·정비와 관련된 텔레매틱스 시스템 데이터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20년 가결, 적법성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 여부 결정

* 출처: 각 법안 내용,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저자 정리

■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 구축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이 필요**

•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는 자동차 산업 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구축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차량데이터 공유범위, 공유방법(플랫폼), 공유비용 부담 귀속 등 중요한 부분이 미정

• 차량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필요

- 차량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자동차 제조사 해킹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지원 필요